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며, 2023년 1월 저희 가정의 소식과 기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 다바크 קב"ק**

성경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끌어져 왔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포로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한 인생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다루심을 받았습니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한 인생을 다루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온 열방에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이 출산하는 모든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가운데 태어나 석 달 동안이나 숨겨졌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에 담겨져 나일 강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 물에서 건져냄을 당합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 2:10)*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원하셨고 이를 위해 그를 물에서 건져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먼저 훈련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동안 코로나, 전쟁, 경제 위기 등 전 세계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119:71) 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이 닦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온 마음을 내주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며,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꺾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8-9).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바크하는 것입니다. 다바크 קב"ק는 ‘언약적 관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다바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창 2:24)

이러한 연합, 다바크는 룯기에서 잘 발견되어집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룯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좃아 따라 갑니다.

*“룯은 그를 붙좃았더라(다바크)” (룯 1:14)*

룯은 시어머니와 연합(다바크)을 합니다. 그 다바크의 의미가 무엇인지 룯의 고백에 잘 나타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룯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연합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룯 1:16)*

2023년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분과 다바크, 연합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역사의 어두운 면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분의 의도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을 던져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 37:3~11)

### †가정과 요셉의 창고 사역 소식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 가정 가운데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좇아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에서 북부 욱스암(갈멜산과 므깃도 사이)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이 곳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먼저 학교에 가겠다고 용기를 내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새로운 학교에 너무도 잘 적응하여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쑥쑥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부르신 곳에서 삶으로 살아내며 열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 이민 가정 어린이 배움 지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새롭게 이민 온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어렵지 않은데, 하아레츠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십 수년간 이스라엘 전체 자살률의 삼분의 일 이상이 새로운 이민자 였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심리적 고통을 넘어, 새로운 이민자들은 권위의 위기, 외로움, 생계의 어려움과 같은 독특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스라엘에서의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땅에서 살아 내기가 쉽지 않음을 몸소 느끼곤 합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이스라엘인들이 이 곳은 살기 힘든 곳 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듣기도 했고 이민 온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마땅히 속할 공동체가

없어 너무 외롭다는 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아의 사랑이 이들 안에 부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자녀들의 배움을 통해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민 가정들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의 일부로, 지난 10월, 저희가 거하는 욱스암 시립 음악원을 통해 처음으로 하다르 벤 쉬틀리트 라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아이의 방과 후 음악 수업을 일년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 하다르 벤 쉬틀리트가 자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하다르의 가정이 이 아이로 인하며 복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 새해에는 더 많은 아이들과 가정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 외로운 친구들 성경 공부 모임

네게브 광야에서 만나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오고 있는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헥터 마레노 라는 멕시코에서 알리야 하신 할아버지 시고, 또 다른 한 명은 우자이 불러트 라는 터키 출신 저널리스트입니다. 헥터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이민온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마땅히 공동체에 속하지 못해 너무 외로워 하시고 나이가 들어 이민 오셨기에 히브리어가 되지 않아 적응이 힘든 등,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우자이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터키 정부의 크리스천 핍박의 부당함에 대해 기사를 써오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키프러스, 벨기에 등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지금은 그리스에 정착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네게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헥터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남쪽 브엘쉐바에 우자이는 그리스 아테네에, 저는 이스라엘 북쪽 욱느암에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줌으로 만나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을 합니다.

→ 성령께서 모임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친구들이 삶의 무게를 이겨낼 힘을 얻고, 주님께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도록

→ 우자이가 그리스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하다르 스기스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사랑과 지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 한 새사람을 이루라

새해부터 저희 가정은 갈릴리 모닝 스타 펠로우십 공동체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매일 들려지는 예배 뿐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와 연합하는 한 새사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이 오늘날에는 매우 종교적인 도시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영적 기류가 있지만 요셉의 창고의 구제와 공휴 사역을 통해 갈릴리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기도와 물질로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곳 이스라엘에서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